

# 부문별 주요 기사

4월 1일~4월 30일

대내경제  
대외경제



## 부문별 주요 기사

4월 1일~4월 30일

---

### 대내경제 101

#### <시장 및 물가>

폭등한 휘발유값과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 물가 및 환율

#### <경제성과>

70일 전투의 성과

#### <식량 및 영양>

식량 상황이 악화된 북한

---

### 대외경제 104

#### <대북제재>

대북제재 확대 및 후폭풍

중국 금수 품목 발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성명 초안 논의

#### <북중관계>

북·중 무역 1분기 작년동기 대비 증가

####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 대내경제

### <시장 및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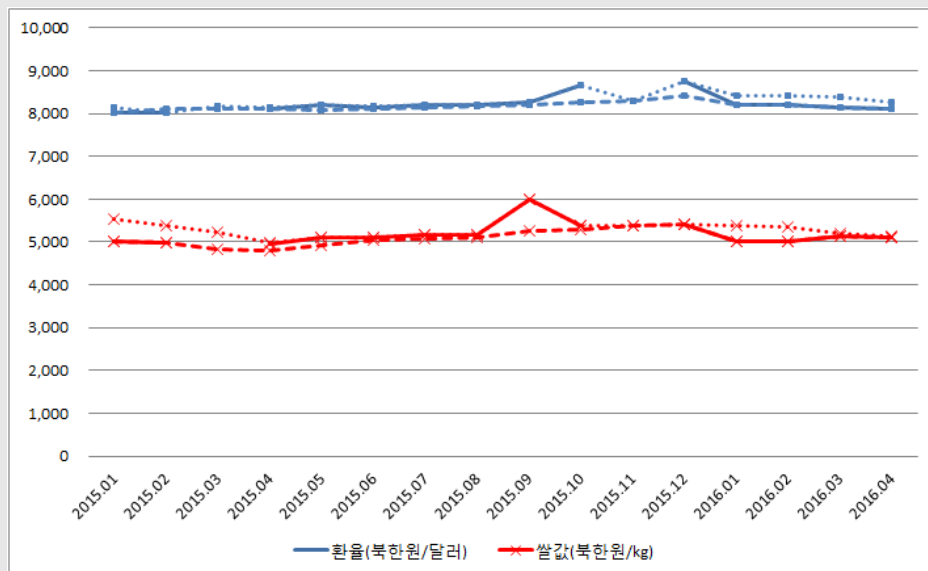
CBS노컷뉴스(4.5), 조선일보(4.6)

#### 폭등한 휘발유값과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 물가 및 환율

북한 전문매체 『DailyNK』의 보도에 의하면 3월 말 1kg당 7,000원이던 휘발유가 4월 초 1만 700원까지 올랐다고 함. 북한에서는 개인이 판매하는 휘발유는 공군 부대에서 빼낸 항공유에 다른 기름을 섞어 제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엔안보리 제재로 대북 항공유 수출이 금지되어 항공유 부족이 일반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을 것이란 분석이 있음.

하지만 폭등한 휘발유값과는 달리 북한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과 쌀 가격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환율은 8천 북한원/달러, 쌀값은 5천 북한원/kg 수준을 1년 넘게 이어가며, 대북제재와 같은 외부요인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음.

<2015년 이후 월별 북한 시장 환율 및 쌀가격 추이>



자료: 『DailyNK』가 제공한 시장 환율 및 쌀 가격을 월별 가격으로 환산함.

## <경제성과>

조선중앙통신(4.8, 4.30)

### 70일 전투의 성과

북한이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작한 “70일 전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의 성과와 관련한 많은 보도가 있었음. 『조선중앙통신』은 4월 20일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70일 전투 목표를 돌파한 생산단위는 전국적으로 1,640여개에 달하며, 그중 560여개는 상반연도 인민경제계획을, 70여개 단위는 연간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였다고 전함.

특히, 평양시에서는 70일 전투가 시작된 후 최근 40일 동안 주요대상건설 및 개건공사 속도는 두 배, 공업생산은 1.6배 성장하였다고 함. 또한, 동평양화력발전소를 비롯한 화력 및 수력발전소의 전력생산이 증가하였고,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강동지구탄광연합기업소의 석탄생산은 1.5배 증가하였다고 보도함.

## <식량 및 영양>

YTN(4.9), 연합뉴스(4.26), FAO(4.27), 조선일보(4.28)

### 식량 상황이 악화된 북한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는 ‘농업, 식량 안보와 영양(2015~16 El Nino Early action and response for agriculture, food security and nutrition)’ 보고서에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해 북한의 식량 상황악화를 발표함. FAO는 2015년 북한의 식량 생산(540만톤)이 재작년 생산량(590만톤)보다 9% 감소했다고 추정함. FAO는 유럽위원회의 공동연구센터와 협력하여 분석한 결과,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량이 총 69만 4000톤이라고 추측함. 또한, FAO는 올해 북한 당국이 30만톤의 식량을 수입할 것으로 예상하여 39만 4,000톤의 식량이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발표함.

### <지역별 식량생산 변화>

지역명	2014년 대비 2015년 식량 변화
남포시	51% 감소
자강도	34% 감소
황해북도	30.5% 감소
평안남도	25% 감소
함경북도	23% 감소

자료: FAO, “2015-16 El Nino Early action and response for agriculture, food security and nutrition,” 2016.

### <작물 종류별 생산량 변화>

작물 종류	2014년 대비 2015년 생산량 변화
벼	26% 감소
옥수수	3% 감소

자료: FAO(<http://www.fao.org/news/story/en/item/2030/icode>, 검색일: 2016. 4. 27).

한편, FAO는 북한의 2016년 1분기 배급량이 주민 1인당 하루 370g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 당국의 목표치인 573g은 물론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인 600g의 61%에 불과한 수준임.

## 대외경제

### <대북제재>

CBS노컷뉴스(4.1), 데일리한국(4.2), The Diplomat(4.6), China Daily(4.6), 한국일보(4.18), 인민일보(4.28), France24(4.30)

#### 대북제재 확대 및 후폭풍

대북제재가 이행되는 모습이 곳곳에 보이기 시작함. 유럽연합은 3월 31일 각료이사회에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수출입과 금융관련 제재 조치를 법제화하기로 밝힘. 이를 위해 식량과 의약품을 제외한 북한 군대 작전수행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함. 또한 북한으로부터의 광물수입이 금지되며, 대북 항공유 수출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법제화했으며, 이번 추가 제재는 4월 1일 관보에 공시되고 즉시 발효됨.

영국 정부는 지난해 이후 이해 증진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북 사업들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남. 영국 외무부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2015~16 회계연도 외교부 예산 지원 중 북한 내 사업은 5개로 전전년 회계연도의 12개, 전년 회계연도의 14개와 비교하여 대폭 축소됨.

한편 멕시코 정부는 2014년부터 억류 중이던 북한 국적 선방 무두봉호를 국가 재산으로 몰수함. 멕시코 연방 검찰청은 무두봉호의 억류로 인한 행정력 손실과 국가비용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몰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으며, 무두봉호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유로 밝혀져 지금까지 억류되어 왔음.

#### 중국 금수 품목 발표

중국 상무부는 4월 5일부터 북한산 광물수입과 항공유 대북 수출을 금지한다는 공고문과 함께 금수 대상 품목의 리스트를 발표함. 이는 지난 3월 2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 2270호가 발효된 지 약 1달 뒤가 지난 시점임. 제재 품목에는 석탄, 철광석, 금, 티타늄, 희토류 등 북한의 주요 광물 수출 품목이 포함됨. 상무부는 금수 품목에 관해 두 가지 예외를 명시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 없는 민생목적의 광물거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발표함. 또한, 나선항 등 북한을 통해 수입되는 제3국의 광물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밝힘. 중국 상무부는 대북 항공유 수출에 관해서도 두 가지 예외 사항을 발표함. 민생을 위한 품목과 북한 민간 항공기에 대한 항공유 거래는 유효하다고 알림.



중국이 민생물품을 예외로 둔 것은 UN대북제재 결의 내용을 강력히 이행하면서도 민간을 위한 인도주의적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전함. 한편, 중국 연구진들은 대북제재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기 위함이며, 제재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함. 전문가들은 중국 중앙정부의 대북제재와 관련한 시행명령을 이행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함. 4월 28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5차 CICA(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 외교장관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UN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전함.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성명 초안 논의

유엔안보리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대북제재 강화를 촉구하는 성명 초안을 논의함. 『AFP통신』이 입수한 성명 초안에 따르면, 모든 유엔 회원국은 대북제재 결의 2270호 발효 후 현재까지 각 국의 결의 이행정도를 5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함. 미국과 중국 양국이 현재 새 성명에 합의했지만, 러시아가 추가적인 검토시간을 요구해 채택이 지연되고 있음.

## <북중관계>

Voice of America(4.13), 매일경제(4.24)

#### 북·중 무역 1분기 작년동기 대비 증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 발효에도 불구하고, 1분기 북·중 교역액이 총 77억 9,000만위안(약 1조 3,75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7% 증가함. 대북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39억 6,000만위안(전년동기 대비 14.7% 증가), 38억 3,000만위안(전년동기 대비 10.8% 증가)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유엔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써 대북제재를 철저히 이행한다고 밝힘. 동시에, 안보리 제재 결의의 틀 밖에서는 북한을 포함해 다른 국가들과의 정상적인 관계(normal relations)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을 통해 얻은 중국 해관총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북제재 첫 달, 중국의 3월 대북 수입액은 2억 2,900만달러로 작년 3월 대비 오히려 13.1% 증가하였으며 대북 수출액 또한 2억 3,600만달러로 12.5% 상승함. 품목별로는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액이 1억 600만달러로 작년동기대비 30.7% 증가함. 다만 항공유가 포함된 정제유는 전년동기대비 31.8% 감소하여, 대북제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음. 중국 해관당국은 4월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1분기 북중무역 통계는 대북제재와 관련이 없다고 밝히며, 4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대북제재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음.

### <북·중 1분기 무역액>

(단위: 백만달러, %)

수출	1월	2월	3월
2015	185(-17)	158(1.3)	203(-10.5)
2016	178(-4.0)	162(2.5)	229(13.1)
수입	1월	2월	3월
2015	208(-35.6)	151(52.9)	204(-16.8)
2016	211(1.3)	162(6.9)	236(12.5)

주: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데이터베이스(<http://kita.net>, 검색일: 2016. 4. 25).

###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CBS노컷뉴스(4.5, 4.6, 4.20), 세계일보(4.12), 데일리한국(4.15)

아래 표는 4월 한 달 간 국내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소식 목록임.

국가명 (단체)	지원일	지원품	지원액 혹은 지원량	비고
스웨덴	2016년	지원액	213만달러	유엔아동기금: 93만 8천달러 유엔아동기금: 64만 5천달러 세이브더칠드런: 55만달러
영국 (외교부)	2013년 부터	지원액	117만달러	2013/14회계연도: 43만 4천파운드 2014/15회계연도: 40만파운드 2015/16회계연도: 10만파운드
스위스	2016년	지원액	500만달러	세계식량계획: 450만달러 국제적십자위원회: 50만달러 (핸디캡 인터내셔널: 10만달러)
유엔인구기금	2016년	의약품	70만달러 어치	분만시 응급처방 약품, 여성 위생품, 분만유도와 제왕절개술 안내책자, 산후패혈증 치료를 위한 항생제, 일회용 주사기
유럽연합	2016년	지원액	30만유로 (34만달러)	핀란드적십자사를 통해 국제적십자사의 대북 사업에 전달

## 기사 원문 리스트

- [2016.4.01] EU "대북 수출입, 금융제재 확대" (CBS노컷뉴스)
- [2016.4.02] 英 정부, 북한 교류·인도적 지원 사업들 대폭 축소 (데일리한국)
- [2016.4.05] 유엔 대북 제재 한달, "北 쌀값·환율 안정, 휘발유는 폭등" (CBS노컷뉴스)
- [2016.4.05] 스웨덴 정부, "대북 사업에 213만 달러 지원" (CBS노컷뉴스)
- [2016.4.06] 北, 유엔제재로 휘발유값 53% 뛰며 경제불안 및 영변시설 (조선일보)
- [2016.4.06] 영국 외교부 "2013년부터 2년 동안 북한에 117만 달러 제공" (CBS노컷뉴스)
- [2016.4.06] China Is Cracking Down on North Korean Trade (The Diplomat)
- [2016.4.06] Beijing announces decision to restrict trade with Pyongyang (China Daily)
- [2016.4.08] 평양시에서 건설속도 2배, 공업생산 1.6배 장성 (조선중앙통신)
- [2016.4.09] FAO "북 올해 식량배급량 10% 감소" (YTN)
- [2016.4.12] "스위스, 국제기구 대북 인도사업에 500만달러 지원" (세계일보)
- [2016.4.13] China Exports Rebound, Lifting Markets (Voice of America)
- [2016.4.15] "유엔, 북한 산모에 70만 달러 의약품 지원" (데일리한국)
- [2016.4.18] 멕시코, 북한 선박 무도봉호 몰수 (한국일보)
- [2016.4.20] 유럽연합, "북한 농촌 지역 재난관리 사업에 34만 달러 지원" (CBS노컷뉴스)
- [2016.4.24] 대북제재 첫달, 중국의 석탄수입액 30% ↑철광석·귀금속 급감 (매일경제)
- [2016.4.26] FAO "작년 북한 곡물 생산량 가뭄으로 18% 감소" (연합뉴스)
- [2016.4.27] North Korea's food production falls for first time since 2010 as water scarcity hits agricultural sector (FAO)
- [2016.4.28] "북한 올해 식량 부족 4년만에 최대...수입해도 40만 부족 (조선일보)
- [2016.4.28] China to never allow war or chaos on Korean Peninsula: Xi (인민일보)
- [2016.4.30] UN council discusses move to enforce North Korea sanctions (France24)
- [2016.4.30] 1,640여개 생산단위들에서 70일전투목표 돌파 (조선중앙통신)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